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김선희¹, 백진아^{2*}

¹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행정학과 박사과정, ²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The Effect of Peer Attachment on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Sun-Hee Kim¹, Jina Paik^{2*}

¹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ABD

²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Professor

요 약 본 연구는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진로정체성과 스마트폰 의존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의 초4 패널 6차년도(2015) 자료를 이용하였고, 조사당시 본 연구에 적합한 중3 재학생 1,823명을 대상으로 변수간의 위계적 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청소년의 또래애착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진로정체성은 또래애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분매개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스마트폰 의존도는 또래애착이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청소년의 진로정체성과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스마트폰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제어 : 청소년, 또래애착, 삶의 만족도, 진로정체성, 스마트폰 의존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peer attachment on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identity and smart-phone dependency in the process. For this purpose, the data from the sixth year Korean Child and Youth Panel Survey(2015) on 1,823 middle school students were analyzed b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among variabl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peer attachment of adolescents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ir life satisfaction. Second, adolescents' career identity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attachment and life satisfaction. Third, the effect of peer attachment on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was partly mediated by their smart-phone dependency. On the basis of above findings, the practical programs to enhance career-identity and life satisfaction and reduce smart-phone dependency were presented.

Key Words : Adolescent, Peer Attachment, Life Satisfaction, Career Identity, Smart-Phone Dependency

1. 서론

청소년기는 신체적·심리적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공부에 대한 압박 및 진로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독립을 추구하고, 또래관계를 중요시하는 등 인간관계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요구받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와 적응의 과정에서 파생되는 불안과 초조,

우울감 같은 부정적 요인들로 인해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도가 낮게 형성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주관적인 행복지수를 연구한 ‘제8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2016)’ 보고서에 따르면, OECD 22개 국가 중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매우 낮은 수준(20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극심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가출과 자살 충동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

* Corresponding Author : Jina Paik(jpaik1@hanafos.com)

Received June 29, 2018

Accepted September 20, 2018

Revised August 27, 2018

Published September 28, 2018

고 있다. 자살충동의 경우 중학생이 3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초등학생의 경우도 31.2%를 차지하여 초기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정서문제에 대한 각별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1].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다른 나라 학생에 비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삶의 만족도란 삶에 대해 인지하는 총체적인 만족감을 의미하며, 주관적 안녕감의 핵심요소로서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을 평가하는데 이용되는 중요한 척도로 사용되고 있다[2,3]. 청소년이 인지하는 주관적인 삶에 대한 만족감은 해당 시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삶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때 형성된 삶에 대한 불만족은 일생 동안 유지됨과 동시에 누적되어 부정적인 인생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갖는다[4,5]. 따라서 중학생 청소년이 느끼는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을 규명하고 자신들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변수로 개인의 심리적 특성, 환경적 특성, 관계적 특성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꼽을 수 있다. 개인 심리적 특성으로 자아정체감[6,7], 진로정체감[6-9], 자아존중감[10,11] 등이 있으며, 관계적 특성으로는 부모양육태도[12,13]와 또래애착[6,14] 등이 주목된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는 성별, 부모의 소득수준, 용돈, 주관적 경제 상태 등이 있으며, 환경적 특성으로 스마트폰 의존도[15-17], 학교생활만족도[7,13] 등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18]. 특히 청소년의 삶의 만족감과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또래애착이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어 강조되고 있다[12,14,18].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이 확립되고 사회적 환경이 확장되는 시기로 이성과 또래 같은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며 부모중심에서 보다 넓은 애착관계로 사회적 관계망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청소년 시기에는 모든 준거의 관점이 또래집단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또래 집단 간의 상호작용이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또래 애착은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19]. Cho의 연구에서도 또래관계가 원만한 친밀감을 경험할수록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5]. 초기 청소년의 애착관계와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에서 또래애착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자신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20,21]. 즉, 청소년이 또래와 애착관계를 잘 형성할수록 주관적인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충족감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들이 일관되게 발표되고 있다.

한편, 청소년기는 자신의 정체감을 확립하고 학업이나 진로정체성 등을 포함하여 단계별 발달과업을 획득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 설정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진로정체성은 진로와 관계된 정체성을 뜻하며, 자신의 진로를 뚜렷하게 인지하고 있는 정도와 진로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의미한다[22]. 고등학생의 자아정체성과 진로정체성을 통해 또래애착과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한 연구에서, 또래와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될수록 진로정체성이 높고 진로정체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6]. 또 다른 연구에서도 진로정체성이 중학생의 학습습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9]. 이처럼 진로정체성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긍정요인이지만 이를 매개로 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또래애착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진로정체성의 매개효과를 연구함은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청소년 시기는 주변의 사회 환경적 특성에 민감하고 이로 인해 심리·정서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환경적 요인 중 하나인 스마트폰은 청소년의 또래들과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지만 때론 과다 사용으로 집중력 감소, 수면방해, 두통 및 불안, 초조 등이 발생하여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23]. 특히 중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또래애착이 스마트폰 의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16,17]. 청소년들이 또래와 신뢰를 쌓고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현상이 감소되는 반면[16], 스마트폰에 많이 의존하게 될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게 된다[15].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뒷받침 하듯이, 최근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경향이 날로 증가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환경적 요인인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현상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청소년이 스마트폰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히 요청된다.

이처럼 청소년의 또래애착, 진로정체성 및 스마트폰 의존도가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또한 또래애착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긍정요인인 진로정체성과 부정요인인 스마트폰 의존도에 대한 매개효과를 분석한 연구도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애착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개인의 내적 특성 요인인 진로정체성과 환경적 요인인 스마트폰 의존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또래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 진로정체성 정립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진로정체성 강화와 스마트폰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적인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데 접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표를 위해 세 가지 연구 문제들을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청소년의 또래애착은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연구문제 2]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진로정체성은 매개효과를 보일 것인가?
- [연구문제 3]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스마트폰 의존도는 어떤 매개역할을 할 것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하여 축적해 온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패널 자료는 층화다단계집락표집 방법에 의해 초4 패널 6차년도(2015)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조사 당시 중3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이상치를 제외하고 본 연구에 적합한 1,823명의 사례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2 측정도구

2.2.1 또래애착

또래애착 척도는 Armsden & Greenberg[24]가 제작한 애착척도(IPPA) 총 25문항 중 하위영역에 따라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각 하위영역 별로 3개 문항씩 총 9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사용하였다[10]. 구체적인 질문 문항은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Likert 4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다’ 1점, ‘그런 편이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구성되었다. 역문항으로 이루어진 6문항은 역코딩을 실시하였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원만하고 높은 것을 의미하며, 또래애착의 Cronbach's alpha값은 .083으로 나타났다.

2.2.2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척도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에서 사용한 삶의 만족도 문항을 활용하였다. 질문 문항은 삶이 즐겁고 행복한지 혹은 걱정거리가 별로 없는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삶에 더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삶의 만족도 척도의 Cronbach's a값은 .77이다.

2.2.3 진로정체성

진로정체성 척도는 Kong[25]이 개발한 척도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진이 8개 문항으로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로정체성이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미래에 하고 싶은 직업이나 인생설계에 대한 준비, 희망하는 전공분야, 소신대로 정확히 직업을 선택한다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결정 내린다는 뜻으로 정의된다[22].

진로정체성의 질문지 구성은 총 8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장래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직업 분야가 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진로정체성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우 그렇다’ 1점, ‘그런 편이다’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질문 문항이 부정문항으로 이루어져 역코딩 하였으며, 그 중 요인부하량 값이 .4 미만으로 나온 ‘부모님이 내가 원치 않는 전공학과를 강요하더라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를 제외한 총 7문항을 분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진로정체성이 잘 형성되어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정체성 척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90으로 나타났다.

2.2.4 스마트폰 의존도

스마트폰 의존도 척도는 Lee et al.[26]가 제작한 문항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에서 사용한 것이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 척도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각 문항의 응답 범위는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다' 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4점까지 분포되어 있다. 모든 문항이 부정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어 역코딩을 실시하였으며,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의존도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의 Cronbach's alpha 값은 .87로 나타났다.

2.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WIN21.0을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모형을 이루고 있는 주요 변인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수행하였고, 변인들 간의 관계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Baron & Kenny[27]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변수 간 경로분석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은 Sobel test를 적용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6,28].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인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서술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 청소년은 조사시점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성별은 남자 946명(51.9%), 여자 877명(48.1%)으로 분포되어 있다. 대상자 중 자신의 성적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1,035명(56.7%)이고, 대체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경우는 788명(43.2%)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월평균 용돈을 살펴보면 2만원 이하인 경우가 450명(24.7%)으로 가

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4만원 초과인 경우는 723명(39.7%), 2만원 1천원에서 4만원 사이도 650명(35.7%)을 차지하고 있다. 가구의 연간소득을 살펴보면 4,900만원 이상에서 6,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490명(26.9%)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2,400만원 이하인 경우는 244명(13.4%)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은 대다수(87.9%)가 부모와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주관적 경제수준은 대다수가 보통수준이라고 하였으며 잘 사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489명(26.6%)으로 나타났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Frequency	%
Gender	Male	946	51.9
	Female	877	48.1
Grade Satisfaction	Not satisfied at all	108	5.9
	Not satisfied	680	37.3
	Somewhat satisfied	850	46.6
	Very satisfied	185	10.1
Pin money	Less than 20,000 won	450	24.7
	21,000 - 30,000 won	390	21.4
	31,000 - 40,000 won	260	14.3
	41,000 - 50,000 won	421	23.1
	More than 51,000 won	302	16.6
Annual income	Less than 24 million won	244	13.4
	25 million - 36 million won	374	20.5
	37 million - 48 million won	389	21.3
	49 million - 60 million won	490	26.9
	More than 61 million won	326	17.9
Family make-up	Parents(father and mother)+children	1,603	87.9
	Other	220	12.1
Subjective economic level	Not well off	171	9.4
	Average	1,163	63.8
	Well off	489	26.8

3.2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독립변수인 또래애착과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 매개변수인 진로정체성과 스마트폰 의존도에 대한 통계치는 Table 2와 같다. 또래애착은 평균 3.15±.44, 삶의 만족도는 평균 3.07±.61, 진로정체성은 평균 2.91±.65, 스마트폰 의존도는 2.28±.63로 나타났다. 각 변수들의 왜도의 절대값이 3을 넘지 않고, 첨도의 절대값이 10보다 낮게 나와 본 연구 모형은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Key Variables (n=1,823)

variables	Min.	Max.	Mean	S.D.	Skewness	Kurtosis
Peer attachment	1.22	4.00	3.15	.44	.09	-.02
Career identity	1.00	4.00	2.91	.65	.01	-.58
Smart-phone dependency	1.00	4.00	2.28	.63	.33	.17
Life satisfaction	1.00	4.00	3.07	.61	-.21	.023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또래애착, 진로정체성 및 스마트폰 의존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진로정체성($r=.27, p<.01$) 및 삶의 만족도($r=.40, p<.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모두 정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	coefficient			
	Peer attachment	Career identity	Smart-phone dependency	Life satisfaction
Peer attachment	1			
Career identity	.27**	1		
Smart-phone dependency	-.16**	-.12**	1	
Life satisfaction	.40**	.31**	-.17**	1

**p<.01

Table 4. The Effects of Peer Attachment, Career Identity, Smart-Phone Dependency on Life Satisfaction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β	t	B	β	t	B	β	t	B	β	t
Gender	.18	.15**	6.38	.22	.18**	8.52	.21	.17**	8.29	.19	.16**	7.75
Pin money	-.02	-.04	-1.59	-.01	-.03	-1.44	-.01	-.03	-1.66	-.01	-.03	-1.39
Annual income	.00	-.01	-.42	-.01	-.03	-1.24	-.01	-.03	-1.17	-.01	-.02	-1.12
Subjective economic status	.21	.20**	8.41	.16	.15**	6.79	.14	.13**	6.16	.14	.13**	6.18
Peer attachment				.54	.39**	18.71	.47	.34**	15.85	.45	.33**	15.27
Career identity							.19	.19**	9.09	.19	.19**	8.87
Smart-phone dependency										-.06	-.06*	-2.89
F		30.838**			99.397**			100.333**			87.546**	
R ²		.064			.215			.249			.252	
Adjusted R ²		.061			.213			.246			.250	
Durbin-watson	2.020											

p<.01, *p<.001, Gender(Man:1, Woman:0)

3.3 또래 애착, 진로정체성, 스마트폰 의존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또래애착, 진로정체성, 스마트폰 의존도가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성별, 용돈, 연소득, 주관적 경제상태)와 또래애착 변수, 진로정체성 변수, 스마트폰 의존도 변수를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참고).

먼저 Model 1에서는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성별, 용돈, 연소득, 주관적 경제상태 변수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Model 2에서는 Model 1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한 후 또래애착 변수를 투입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Model 3에서는 Model 2의 변수를 통제한 후 진로정체성 변수를 투입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Model 4에서는 Model 3의 변수를 통제한 후 스마트폰 의존도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각 변인별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모델 1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해 성별, 월 평균 용돈, 연소득, 주관적 경제상태 등을 투입하였다. 먼저 성별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여자 청소년의 만족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15, p<.001$), 이러한 결과는 Jung & Lee[29]의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주관적 경제상태도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0,$

$p < .001$). 투입된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에서 월 평균 용돈과 가구의 연소득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모델 2에서도 통제변수인 성별과 주관적 경제상태가 삶의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각각 $\beta = .18$, $p < .001$, $\beta = .15$, $p < .001$)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 투입한 독립변수인 또래애착 변수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또래애착 관계가 원만할수록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9$, $p < .001$). 청소년들이 또래와의 관계가 잘 형성될수록 자신의 삶에 있어 행복감을 경험하게 되어 만족도가 증진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모델 2에서 삶의 만족도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21.5%로서 모델 1에 비해 15.1%($F = 99.397$, $p < .001$)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또래애착이 직접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델 3에서 진로정체성의 변수가 추가되면서, 모델 2에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던 또래애착($\beta = .34$, $p < .001$) 변수의 값은 약간 감소하였다. 진로정체성 변인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진로정체성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진로정체성이 높으면 삶의 만족도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9$, $p < .001$). 이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정체성이 확고하게 정립될수록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정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모델 3에서 삶의 만족도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24.9%로서 모델 2에 비해 3.4%($F = 100.333$, $p < .001$) 증가하였다.

모델 4에서 스마트폰 의존도 변인이 추가됨에 따라 또래애착($\beta = .33$, $p < .001$)과 진로정체성($\beta = .19$, $p < .001$)이 삶의 만족도간에 미치는 영향력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진로정체성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의존도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6$, $p < .01$). 이는 청소년이 스마트폰에 많이 의존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모델 4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25.2%($F = 87.546$, $p < .001$)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지수(VIF)가 10이하의 절대값을 보이고 있어,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4 진로정체성과 스마트폰 의존도의 매개효과 검증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진로정체성과 스마트폰 의존도는 또래애착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간에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정체성과 스마트폰 의존도의 매개효과를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Baron & Kenny[27]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독립변수인 또래애착이 매개변수인 진로정체성과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각각 단순회귀분석을 한 후, 또래애착이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결과는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후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고, 다음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진로정체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후, 다음으로 스마트폰 의존도의 매개효과를 각각 설명할 것이다.

3.4.1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정체성의 매개효과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정체성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1단계에서는 또래애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2단계에서는 또래애착과 진로정체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단계에서는 또래애착이 진로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Table 5의 1단계에서 또래애착은 삶의 만족도에 확률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40$, $p < .001$), 삶의 만족도에 대한 또래애착의 설명력은 15.9%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독립변수인 또래애착과 매개변수인 진로정체성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인 또래애착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진로정체성으로 인해 영향력이 1단계보다 낮은 결과로 나타났으며($\beta = .34$, $p < .001$),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소년의 진로정체성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고($\beta = .21$, $p < .001$), 이를 통해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진로정체성의 간접효과를 발견하였다. 3단계에서 또래애착은 진로정체성에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9$ $p<.001$). 3단계에서 진로정체성에 대한 독립변수인 또래애착의 설명력은 8.2%로 나타났고, 이러한 단계별 검증을 통해 청소년의 또래애착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과정에서 진로정체성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Table 5. The Effect of Peer Attachment on Life Satisfaction Level in Mediating Effect of Career Identity

Path	B	β	t	F	R ²	adjusted R ²
Peer attachment → Life satisfaction	.55	.40**	18.57	344.961159	.159
Peer attachment, Career identity → Life satisfaction	.46	.34**	15.44	229.279201	.200
	.21	.21**	9.78			
Peer attachment → Career identity	.39	.29**	12.79	163.474082	.082

** $p<.001$

3.4.2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마트폰 의존도의 매개효과

Table 6은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마트폰 의존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1단계에서는 또래애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2단계에서는 또래애착과 스마트폰 의존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단계에서는 또래애착이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Table 6의 1단계에서 또래애착은 삶의 만족도에 확률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beta=.40$ $p<.001$), 매개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대한 또래애착의 설명력은 15.9%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독립변수인 또래애착과 매개변수인 스마트폰 의존도를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인 또래애착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스마트폰 의존도로 인해 영향력이 1단계보다 낮은 결과로 나타났으며($\beta=.38$, $p<.001$),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고($\beta=-.10$ $p<.001$), 이를 통해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스마트폰 의존도의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 3단계에서 또

래애착은 스마트폰 의존도에 확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6$ $p<.001$). 3단계에서 스마트폰 의존도에 대한 독립변수인 또래애착의 설명력은 2.6%로 나타났고, 이러한 단계별 검증을 통해 청소년의 또래애착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스마트폰 의존도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6. The Effect of Peer Attachment on Life Satisfaction Level in Mediating Effect of Smart-phone Dependency

Path	B	β	t	F	R ²	adjusted R ²
Peer attachment → Life satisfaction	.55	.40**	18.57	344.961159	.159
Peer attachment, Smart-phone dependency → Life satisfaction	.52	.38**	17.68	186.002170	.169
	-.10	-.10**	-4.78			
Peer attachment → Smart-phone dependency	-.23	-.16**	-6.92	47.943026	.025

** $p<.001$

위의 결과를 토대로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행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진로정체성과 스마트폰 의존도는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각각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확률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7. Mediated Effect Verification

Path	Sobel test statistic	p
Peer attachment → Career identity → Life satisfaction	7.702	.000
Peer attachment → Smart-phone dependency → Life satisfaction	3.900	.000

4. 결론 및 논의

지금까지 청소년 또래애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대해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진로정체성과 스마트폰 의존도는 어떻게 매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와 논의는 아래와 같다.

첫째, 청소년의 또래애착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또래애착이 잘 형성될수록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신뢰관계가 높게 쌓일수록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느껴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친구들에게 느끼는 애착이 높으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5]. 중학생의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주관적 안녕감)를 증진시킨다는 선행연구[25]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며 또래애착은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선행변수임을 시사한다[3]. 특히 청소년기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있어 친밀감과 유대감이 강화되는 시기로, 지지적인 또래관계 형성이 삶의 만족도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23]. 따라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 또래들 관계에서 의사소통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특히 학교 사회복지사와 전문상담사의 협조아래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그룹별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또래애착은 청소년의 진로정체성과 삶의 만족도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확률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진로정체성은 또래애착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사이에 부분적인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시기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감정기복이 심하지만, 친구관계에서 신뢰감 형성이 제대로 쌓이면 자신의 진로정체성 확립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30]. 또한 또래들 간에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며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교류하며 진로에 대한 생각을 공유할수록 진로정체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 결과 청소년의 진로정체성 확립은 자신의 삶에 긍정적으로 대처하게 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태도를 보여 이후 삶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소년의 진로정체성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또래애착이 원만할수록 진로정체성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함을 볼 수 있다[6,31]. 이런 점에서 청소년들의 진로정체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대인관계형성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확대하고 또래관계에서 공감능력과 이해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자율학기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은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또래들끼리 스스로 직업탐방 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토론하는 주제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나아가 청소년의 진로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진로와 접목한 다양한 동아리활동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진로정체성 확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행됨으로써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도 함께 상승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스마트폰 의존도는 또래애착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사이에 부분적으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잘 이루어지면 스마트폰 의존도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삶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래애착의 원만한 형성은 스마트폰 의존도를 낮추며 사회 환경적 요소가 스마트폰에 의존하도록 부추겨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게 된다.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우울 및 스마트폰 중독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결과에서도 스마트폰에 중독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14].

부모양육태도와 또래애착,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를 분석한 Kim et al[32]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또래애착이 견고하게 형성될수록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경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관한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청소년의 또래애착의 부재와 소외감 정도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16,33].

하지만 중학생의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및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결과에서는 또래애착이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34]. 이처럼 스마트폰 의존도는 또래애착이나 삶의 만족도와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임에 분명하지만 서로 상이한 연구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근본적으로 스마트폰 이용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스마트폰의 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또래애착과 진로정체성, 그리고 스마트폰 의존도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며, 이후의 삶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이다. 이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피고, 특히 또래애착 변수와 삶의 만족도의 인과 관계 과정에서 진로정체성과 스마트폰 의존도가 매개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제로 진로정체성과 스마트폰 의존도 요인의 중요성을 밝혀내었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을 조사 당시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에 대한 논의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이미 변수가 구성되어 조사가 완료된 패널자료를 활용함에 따라 새로운 변수에 대한 설명이 제한되었고, 그로 인해 삶의 만족도에 관한 보다 포괄적인 논의로 확장시키는데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인격형성과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사회적 지지에 대한 논의와 삶의 만족도에 있어 나타나는 성별 차이 등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적·외적·환경적 요인 등을 포함한, 보다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설명이 보완되어야 하며, 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확률적 유의성을 넘어 삶의 만족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맥락에 대한 이해를 위해 질적 연구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변수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어 보다 정밀한 통계적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또래애착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청소년의 진로정체성을 향상시키고 스마트폰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제도적 지원에 대한 실천적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The Kyunghyang Shinmun. (2018).<http://weekly.khan.co.kr/>
 [2] S. M. Suldo & E. S. Huebner. (2004). Does Life Satisfaction Moderate the Effects of Stressful Life

Events on Psychopathological Behavior during Adolescence?. *School Psychology Quarterly*, 19(2), 93-105.
 [3] S. J. Kim, H. S. Doh, W. K. Lee & B. Park. (2016). The Pathways from Parent Attachment to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through Peer Attachment and Romantic Relationship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7(5), 83-100.
 [4] Y. Yang. (2009). Social Inequalities in Happiness in the United States, 1972 to 2004: An Age- Period-Cohort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3(2), 204-226.
 [5] J. M. Cho, J. H. Kang & B. K. Lee. (2012). Effects of Family Structure and Friendship Network on Korean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Social Science Review*, 43(1), 47-71.
 [6] M. R. Park & E. J. Yang. (2017). The Effects of Parental Neglect and Peer Attachmen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High School Students through the Medium of Self-Identity and Career Ident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4(1), 263-284.
 [7] G. H. Park & J. M. Lee. (2014). The Effect of Parenting Behavior on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The Mediating Effect of Ego-Identity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Family Welfare*, 19(4), 997-1013.
 [8] I. H. Seo & S. A. Jang. (2017). The Effects of Family Risk Factors on Teenagers' Life Satisfaction: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Identity.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21(3), 415-433.
 [9] B. E. Gang, E. B. Kim & S. Jung. (2017). Mediating Effects of Career Identity on the Relation between Study Habit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Adolescents. *Teacher Education Research*, 56(1), 94-106.
 [10] Y. H. Jeong, C. W. Bong & S. H. Hong. (2017). Analyzing Change Trajectory and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 An Application of Latent Growth Modeling.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5(1), 181-210.
 [11] M. S. Suk & Y. K. Koo. (2014). The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on Smartphone Addiction of the Adolescent : The Mediating of Self-esteem and Self-control. *Korean Journal Family Welfare*, 19(4), 905-928.
 [12] S. A. Oh & J. H. Ryu. (2017). The Effects of Parental Rearing Styles on Life Satisfaction in Korean Youths: The Mediating Effects of Youth Activities and Peer Attachment.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6(3), 207-222.
 [13] M. G. Jin, Y. S. Choi & E. Y. Son. (2017). The Reciprocal

- Relationship between Peer Attachment and Life Satisfaction in Adolescents: Through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4(9), 205-222.
- [14] S. S. Baek & J. Y. Cho. (2017). The Influence of Life Stress, Depression, Smart-phone Addiction on Quality of Life among College Students,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8), 248-256.
- [15] S. Y. Han, E. J. Yun, S. G. Choi & D. S. Hong. (2011). Analysis on the Impact of Using Smart-phone to Subjective Quality of Life, *Information Society & Media*, 20, 49-84.
- [16] E. J. Cha & K. H. Kim. (2015). Effects of Peer Attachment on Mobile Phone Dependence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Testing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Korea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44, 79-108.
- [17] J. Y. Lee, H. J. Kwon & Y. J. Kim. (2014). A Study of the Relationship on Mobile Phone Overuse, School Adaptation and Mental Health of Elementary Students, *Journal of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2), 1087-1101.
- [18] S. Y. Kim & K. B. Yun. (2016). Estimating Adolescents' Changes in Life Satisfaction: Tests of the Effects of Factors on Individual Differences in Such Changes. *Studies on Korean Youth*, 27(2), 271-296.
- [19] E. Oberle, K. A. Schonert-Reichl & B. D. Zumbo. (2011). Life Satisfaction in Early Adolescence: Personal, Neighborhood, School, Family, and Peer Influenc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 889-901.
- [20] Q. M. Claudia · E. S. Huebner. (2008).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Some Relationships Matter more to Girls than Boys. *Journal of Psychology in the Schools*, 45(2), 177-190.
- [21] M. R. Park & E. J. Yang. (2017). The Effects of Parental Neglect and Peer Attachmen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High School Students through the Medium of Self-Identity and Career Ident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4(1), 263-284.
- [22] J. L. Holland, D. C. Gottfredson & G. Power. (1980). Some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6), 1191-1200.
- [23] O. E. Salama, E. I. Abou & R. M. Naga. (2004). Cellular Phones: Are They Detrimental?, *The Journal of the Egyptian Public Health Association*, 79, 197-223.
- [24] G. C. Armsden & M. T. Greenberg.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25] Y. N. Ko. (2008). The Relationship among Father, Mother, Peer Attachment and Subjective Well-Being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16(2), 111-131.
- [26] S. H. Lee, H. S. Kim, E. Y. Na, S. Y. Lee, S. N. Kim & J. H. Bae. (2002). *A Study of Adolescents' Mobile Phone Usage and Effects of Mobile Phone Usage*. Seoul: Samsung Life Public Welfare Foundation Community Mental Health Research Institute.
- [27]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5(6), 1173-1182.
- [28] D. Jeong & J. S. Lee. (2015). Adolescent's Self-Esteem,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Satisfaction. *The Korea Contents Society*, 15(9), 273-284.
- [29] D. P. MacKinnon, C. M. Lockwood, J. M. Hoffman, S. G. West & V. Sheets. (2002). A Comparison of Methods to Test Mediation and other Intervening Variable Effects. *Psychological Methods*, 7, 83-104.
- [30] S. J. Kwon, J. R. Park & J. Y. Kim. (2017). Influence of Peer Attachment on Career Identity of Adolescents: Testing the Mediating Effect of Sense of Community and School Adjustment.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33(2), 29-51.
- [31] Y. A. Son, S. J. Sin & E. Y. Son. (2014). Valuables Affecting to Career Identity of Middle School Student.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7(1), 109-125.
- [32] K. S. Kim, K. S. Shin & H. M. Lee. (2017). The Effect of Positive an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s' Smartphone Dependency in the Time of Converge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eer Attachment.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4), 139-149.
- [33] Y. M. Lim. (2014). The Effects of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and Peer Relationships on Children's Mobile Phone Dependency and Use Type.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3(2), 163-174.
- [34] G. I. Jung & J. H. Kim. (2016).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Parental Attachment, Peer Attachment, and Smart Phone Addic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23(3), 599-614.

김 선 희(Sun. Hee Kim)

[정회원]



- 2010년 2월 : 건국대-학점-사회복지학전공(문학사)
- 2012년 2월 : 광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석사)
- 대학원 사회복지행정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아동, 여성, 다문화, 노인, 가족
- E-Mail : sunhe0201@naver.com

백 진 아(Paik, Jina)

[정회원]



- 1982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문학사)
- 1984년 8월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사회학석사)
- 1995년 8월 : University of Notre Dame(사회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가족, 노동, 여성
- E-Mail : jpaik1@hanafos.com